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2

1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동양 사상가는 매일 세 가지를 반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을 위함에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 사귄데 있어 믿음을 주었는가? 스승에게 배운 바를 실천으로 옮겼는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① 자연적인 욕구에 충실한 유희적 삶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 ②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 수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 ③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보다 사익 추구를 우선하는 존재이다.
- ④ 도덕적 성찰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 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2. 고대 동양 사상이 감,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 사람의 본성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에 선함과 선하지 않음의 구분이 없는 것은 이와 같다.
을: 사람의 본성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도 없는가?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

- ① 감은 인간마다 선한 본성 또는 악한 본성이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서로 뒤섞여 있다고 본다.
- ③ 감은 을과 달리 인간의 본성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 ④ 을은 감과 달리 인간은 본래 도덕성을 지닌 존재라고 본다.
- ⑤ 감, 을은 모두 인간의 본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3.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견(正見)인가? 그것은 고통에 대해 아는 것[苦諦], 고통의 발생에 대해 아는 것[集諦], 고통의 소멸에 대해 아는 것[滅諦], 고통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 아는 것[道諦]이다.

— <보 기> —

ㄱ. 열반에 이르기 위하여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해야 한다.
ㄴ. 괴로움을 제거하려면 무명(無明)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ㄷ. 인연생기(因緣生起)를 깨달아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
ㄹ. 무아(無我)를 깨달아 만물이 고정된 실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의 본성[性]과 인위[偽]의 구분을 잘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A)</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가로 열쇠] (A) : 예(禮)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B) :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치 이념이나 주의(主義) [세로 열쇠] (A) : 개념												(A)				(B)												
				(A)																									
	(B)																												

- ①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의 정신을 뜻하는 것이다.
- ②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이 외면적 사회 질서로 표현된 것이다.
- ③ 성인(聖人)이 제정한 규범으로 본성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사회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며 무위(無爲)에 어긋나는 것이다.
- ⑤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가), (나), (다) 사상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에 따름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
(나) 이것이 생기기[生]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기[滅]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는다.

— <보 기> —

ㄱ. 인간은 자연의 주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ㄴ. 인간과 자연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共生)의 관계인가?
ㄷ. 만물은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조화롭게 존재한다고 보는가?
ㄹ. 자연은 어떠한 질서도 없는 우연한 인과(因果)의 산물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늘려가는 것이다. 격물이란 한 사물에서 그 이치를 궁구(窮究)하는 것이고, 치지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앎이 지극하게 되는 것이다. 을: 격물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격물이란 사욕을 제거하여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는 것이고, 치지란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	

— <보 기> —

- ㄱ. A: 마음 밖[心外]의 사물에도 이치가 들어있다.
 ㄴ. B: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양지가 내재해 있다.
 ㄷ. B: 지행(知行)의 선후(先後)를 논하면 지가 먼저이다.
 ㄹ. C: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멀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 사람이 네 가지 선의 단서[四端]를 모두 확충할 수 있으면 천하를 보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
 ◦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잘하는 것은 ' 타고난 능력'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 타고난 지혜'이다. 제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가 없고, 자라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지극히 크고 올곧은 도덕적 기개를 길러야 한다.		√			√	√
인의를 해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군주를 바꿀 수 있다.			√	√	√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은 후천적 노력을 통해 형성된다.		√	√			√
백성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보장되어야 도덕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8.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심(一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지만 무지로 말미암아 자신 안의 일심을 알지 못하므로 윤회(輪廻)의 삶을 떠돌게 된다. 비록 윤회의 삶이라는 파도가 일어나지만 일심의 바다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 일심에는 생멸(生滅)과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眞如)가 동시에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둘이 아닌 하나이다.

- ① 화쟁(和諍)으로 대립하는 종파들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②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가능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③ 일심을 자각하지 못하면 윤회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고 본다.
 ④ 일심으로 돌아가 이원적 대립과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⑤ 열반에 이르려면 진리와 현실이 다름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9. 그림은 과정 평가 계획서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정 평가 계획서 ●

- 주제: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 탐구하기
 ◦ 학생 활동: 모둠별 주제에 대한 조사 및 발표
 ◦ 모둠별 주제

구분	주제	내용 예시
1모둠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가)
2모둠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나)
3모둠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	(다)
4모둠	유·불·도 이상적 인간상의 공통점	(라)

- 평가 방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 ① (가): 수련을 통해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② (나): 삼독(三毒)에서 벗어나 보시(布施)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③ (다): 경(敬)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완성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④ (라):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한 심신의 수련을 강조한다.
 ⑤ (라): 인간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지향한다.

1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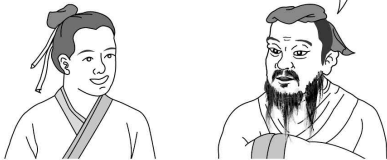
- 갑: 손님이 오거든 한울님이 오셨다 하라. 마음을 떠나 한울님을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을 떠나 한울님을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이 곧 한울님이니 사람의 귀천(貴賤)을 분별함은 곧 한울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을: 선천(先天)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相戾)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다. 이제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 이상 세계를 건설하여 민생을 건져야 한다.

- ① 갑: 경천(敬天)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② 갑: 기존의 성리학적 전통과 신분 질서의 유지를 강조한다.
 ③ 을: 모든 고통과 갈등의 원인인 원한을 풀 것을 주장한다.
 ④ 을: 작은 은혜에도 보답하는 보은(報恩)의 실천을 주장한다.
 ⑤ 갑, 을: 내세보다 현세에서 이상 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한다.

11. 그림의 스승은 고대 동양 사상가이다. 스승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승님! 인(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을 실현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 ①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것을 주장한다.
- ② 자신을 미루어 보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것을 강조한다.
- ③ 준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 없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 ④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할 것[忠]을 강조한다.
- 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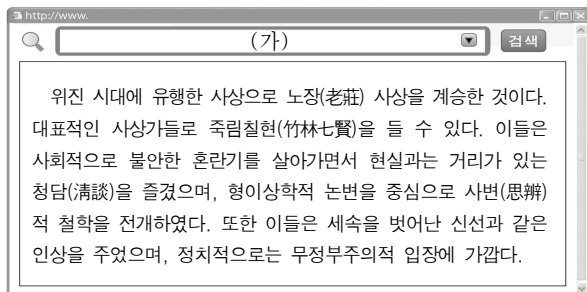
12.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혀 상호 의존적이므로 고정 불변하는 독자적인 성질, 즉 자성(自性)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실체라 믿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공(空)일 뿐이다.

(나)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는 없지만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은 존재한다. 따라서 현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일 뿐이다.

- ① (가)는 고행(苦行)만이 깨달음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 ② (나)는 마음과 별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현상은 마음의 작용으로 생겨난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자기 해탈과 함께 중생 구제를 행해야 한다고 본다.

13. 그림은 어느 동양 사상을 검색한 화면이다. (가)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제(黃帝)와 노자를 숭상하며 제왕의 통치술을 강조한다.
- ② 세속적 가치를 넘어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를 중시한다.
- ③ 혼란기의 백성들에게 질병 치료와 종교적 구원을 제시한다.
- ④ 도덕적 선행을 반복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⑤ 노장 사상을 계승하여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14. 다음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 어떤 사람은 선(禪)을 숭상하여 교(敎)를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교를 숭상하여 선을 비방한다. 이들은 모두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임을 알지 못한다.
- 범부(凡夫)가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돈오(頓悟)요,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차츰 익혀서 성(聖)을 이루는 것이 점수(漸修)이다.

	질문	대답
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야 하는가?	예
②	해탈에 이르려면 경전만을 연구해야 하는가?	예
③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도 수행을 해야 하는가?	예
④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야 하는가?	아니요
⑤	화두(話頭)를 들고 수행하는 간화선(看話禪)이 필요한가?	아니요

1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죄 없는 이를 죽이는 것은 인(仁)이 아니며, 자기 것이 아닌 데도 취하는 것은 의(義)가 아니다. 선비가 거쳐해야 할 곳은 바로 인이며,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의이다.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갖추어진 것이다.

을: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어 주어도 근심할 것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 주어도 슬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늘일 것이 아니다. 생각전대 인의(仁義)가 어찌 사람의 본성이겠는가!

— <보 기> —

- ㄱ. 갑: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ㄴ. 을: 세속적 차별에서 벗어나 제물(齊物)을 지향해야 한다.
- ㄷ. 을: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분별적 지식을 중시해야 한다.
- ㄹ. 갑, 을: 이상적 삶을 실현하려면 도(道)에 따라 살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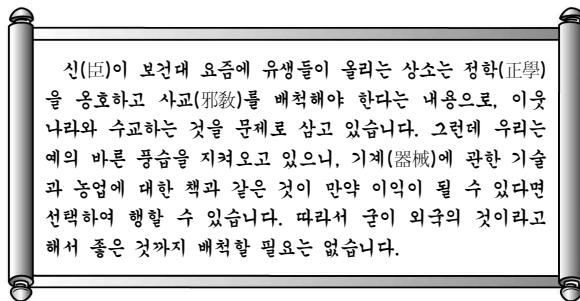
사회탐구 영역

16.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선왕(先王)은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不忍人之政]를 실천하였기 때문에 천하를 쉽게 다스릴 수 있었다.
 을: 성왕(聖王)은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하여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야 바르게 되며, 예의로 인도해야 잘 다스려지기 때문이다.

- ① 갑: 백성들을 강력한 힘과 엄격한 형벌로만 지배해야 한다.
- ② 갑: 군주는 법령을 부정하고 자연에 따른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
- ③ 을: 백성들의 모든 욕망을 내면적 규범인 예로써 제거해야 한다.
- ④ 을: 군주는 무력으로써 궁극적 목표인 부국강병을 실현해야 한다.
- ⑤ 갑, 을: 군주는 군자다운 인격을 갖추고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

17. 그림의 상소문을 쓴 근대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양의 종교와 모든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종래의 유교 사상에 대해 전면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국난 극복을 위해 유·불·도 사상을 융합해야 한다고 본다.
- ④ 국가 존립을 위해 외국과의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 ⑤ 동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18.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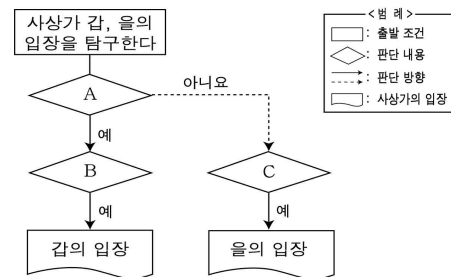
(가)	성인(聖人)의 정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앎이 없고 [無知] 욕심이 없게 하여[無欲]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위(無爲)를 행한다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나)	학생: 통치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사상가: 통치자는 ㉠

- ①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 체계를 만들어야 하네.
- ② 무위의 정치로 백성들이 소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네.
- ③ 인의(仁義)를 기반으로 한 사회 제도의 기준을 세워야 하네.
- ④ 선악(善惡)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로움을 쌓아야[集義] 하네.
- ⑤ 예(禮)를 통해 백성들의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네.

[19~20]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정(情)에 대해 사단(四端)이다 칠정(七情)이다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理)만을 말할 때와 기(氣)를 곁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칠정을 곁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곁할 수 있다. 이처럼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같다. 즉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發)한 것이다.
 을: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니 순선(純善)하여 악이 없다. 그런데 이가 발함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不善)함이 있게 된다.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乘] 것이니 불선함이 없다. 그런데 기가 발함에 들어맞지 않아 이를 없애니 방만하게 되어 악이 된다.

19.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이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까닭인가?
- ② B: 마음의 작용은 이의 발과 기의 발로 구분되는가?
- ③ B: 사단은 기가 발한 성이고 칠정은 이가 발한 정인가?
- ④ C: 마음의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는 순수하고 선한 정인가?
- ⑤ C: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나타난 정인가?

20. 다음 한국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의 성(性)은 단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다. 선을 좋아함으로 해서 측은(惻隱)과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게 되고, 악을 싫어함으로 해서 수오(羞惡)와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심(四心)이 있음으로 해서 사덕(四德)을 이룰 수가 있다.

- ① 사덕은 사단의 실천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사덕의 회복으로 기질의 변화가 가능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사단은 본성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사단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사단의 확충을 위해 욕구의 억제가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